

이홍재의 세상만사



지난번 칼럼의 내용이 제법 괜찮았던 모양이다. 많은 독자들이 문자 메시지를 통해 상찬(賞讚)을 아끼지 않았다. 축스러움을 무릅쓰고 그중 몇 개를 소개한다.

“집에서 손맛 좀 있다는 아줌마가 만든 음식 먹다가 고급호텔 레스토랑에서 일류 셰프가 만든 음식을 먹는 기분이랄까. 역시 프로답다는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올해의 칼럼상 뭐 이런 건 없나?” 최고의 찬사(讚辭)다.

“세상만사 재미있게 잘 읽었네. 자꾸만 곱씹게 하는 글. 미소 띤 ‘아지’가 비수 같구만.” 역시 칭찬이다. 한글같은 청송(淸嶺), 좀 이상하지 않은가. 사실은 문자를 보내 온 이들이 모두 내 친구들이다. 친구 좋다는 걸 다시금 느낀다. 이리니 친구가 장에 가면 ‘장웃’(거름) 지고서라도 따라나서는 것 아니겠는가.

그건 그렇고 ‘미소 띤 아지’라니. 아지가 뭐지? 일본말인가? 또 다른 친구에게 물어보니 일본말 같지는 않다면서 ‘아지랑’이란 단어와 비슷한 뜻

아니겠느냐고 한다. 그래 ‘아지랑’을 사전에서 찾아보니 ‘알뜰도록 능청맞고 천연스러운 태도’라고 나와 있다.

아 그렇구나. 같은 뜻의 그림씨(형용사)도 있었다. ‘아지랑스럽다’ ‘아지렁스럽다’. 모두 ‘능청맞고 천연스럽다’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아지는 순수한 우리말인가? 이제부터는 혼자서 아지란 말의 뿌리(어원, 語源)를 찾아 나선다.

아름다운 우리말을 찾아서

이옥고 국립국어원의 우리말 다듬기에서 ‘아지’를 대체할 말로 ‘야유’(椰櫚)를 선정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야유는 ‘남을 빈정거리 놀림, 또는 그런 말이나 몸짓’을 뜻한다. 이제서야 아지가 순우리말이 아님을 알겠다. 그래 우리말이라면 국립국어원에서 그렇게 다듬었을 리가 없을 테니까. ‘아지랑’이나 ‘아지랑’이라는 단어 역시 마찬가지다. 일본어 사전에 ‘아지’(野次)와 ‘이지’(彌次)는 ‘짓궂게 굴거나 웃음거리로 만들어 놀림 또는 놀리는 말’로 풀이돼 있다.

결국 아지, 아지랑, 이자랑 이 모두 일본말 아지(ヤ)에서 온 것으로 추측할 수밖에 없었지만(혹은 거꾸로 우리말 ‘아지’가 일본으로 흘러들어간 것일지도 모르지만) 순우리말인 것처럼 보이는 낱말이 실은 외국에서 들어와 변한 말들은 의외로 많다. 밀가루로 만든 ‘빵’이 원래는 포르투갈어이

며 고무신의 ‘고무’가 프랑스어에서 유래된 것임을 아는 이는 얼마나 될까.

더욱이 한자어에서 변한 말은 셀 수도 없이 많으니 ‘마냥 그림다’에서의 ‘마냥’도 그렇다. ‘항상’ ‘늘’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마냥’의 원말은 뜻밖에도 ‘매상’(每常)이라는 한자말이다. ‘강녕’이나 ‘강녕’도 순우리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한자말(江南)이 변한 것이다. 우리가 흔히 쓰는 ‘글’과 ‘글씨’도 한자(契：문서 ‘결’ 또는 ‘계’)의 변이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보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말이 잠시 옆길로 섰지만 애초 ‘아지’라는 말의 탐험에 나선 것은 어수선한 정국 때문에 잠시 한글날을 잊고 넘어갈 뻔했다는 자책감(?) 때문이었단다. ‘아지랑’-만약 이게 순우리말이라면 울림소리(유성음, 有聲音)가 들어가는 맛진 말을 또 하나 발견한 희열을 느낄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도 있었다. 울림소리!

우리말의 울림소리에 있는 크게 흐름소리(유음, 流音)과 콧소리(비음, 鼻音)가 있다. 이 콧소리(ㄴ, ㄹ 및 받침 이)와 흐름소리(ㄹ)가 들어가는 단어는 은쟁반에 옥구슬 구르듯이 매우 청아하고 부드럽고 감칠맛이 있다.

예를 들면 ‘말랑말랑’ ‘찰랑찰랑’ ‘살랑살랑’ 따위의 시늉말이나 ‘여강도리’ ‘다롱다롱’ ‘둥둥다리’ ‘알리알리알라성’ 따위의 남소리(餘音) 그리고 동서고금을 통틀어 최고의 가치인 ‘사람’이란 단어에 은하수를 뜻하는 순우리말 ‘미르내’(용

이 살고 있는 강 또는 시내)까지.

울림소리로 어우러진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아직도 잘 모르겠다면 이런 동요는 또 어떤가? “송알송알 씨리외에 은구슬/ 조롱조롱 거미줄에 옥구슬/ 대롱대롱 풀잎마다 총총/ 방긋 웃는 꽃잎마다 송송송”

‘구슬비’라는 제목의 이 동요는 해방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60년이 넘도록 교과서에 실렸으니 이를 모르는 이는 간첩일지 분명한데,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살려 쓴 가장 뛰어난 작품 가운데 하나로 손꼽힌다. “동시 100년의 역사에서 ‘송알송알’ ‘총총’ ‘송송송’ 등 시늉말(의태어)을 이토록 잘 살려 쓴 작품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것은 전병호(63) 시인의 극찬이다.

동요 ‘구슬비’와 권오순 시인

‘구슬비’를 작곡한 이는 ‘우리의 소원’을 만든 안병원(1926~2015)이요 노랫말을 만든 이는 권오순(1919~1995) 시인이다. 작사자 권 시인은 어쩌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인생을 살았던 것 같다. 앞서 말한 전 시인의 입을 통해 권 시인의 생애를 살짝 더듬어 보자.

“권오순 시인은 세 살 때 소아마비에 걸렸는데 초등학교 입학할 나이가 되자, ‘미운 일본 글 일본말을 배우기보다 더 많은 다른 공부들 집에서 나 혼자 하겠다’고 결심하고 학교도 다니지 않았다고

해요. 시인은 아버지께 사 달라고 부탁해 받은 ‘한글대사전’으로 우리말과 글을 익히면서 밤새워 시를 썼습니다. 우리말과 글을 아름답게 갖고 다듬어 시를 쓰는 것이 장애했을 이기고 나라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굳게 믿었지요. 1937년 ‘카톨릭 소년’에 발표한 ‘구슬비’는 시인의 이런 마음을 담은 대표적인 시입니다.”

“1948년 11월, 시인은 홀로 고향인 황해도 해주에서 인민군의 총소리를 들으며 조각배를 타고 캄캄한 바다를 건넌습니다. 남한에서 ‘구슬비’가 동요로 작곡되어 널리 불리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나마 알았기 때문이지요. 남한에 온 시인은 결혼도 하지 않고 고아원에서 부모 없는 어린이들을 돌보는 등 평생을 재속(在俗) 수녀로 가난하게 살았습니디.”

이처럼 맑고 깨끗한 삶을 살다 가신 것이지요.”

570돌 한글날을 보내며 많은 선각자들을 떠올린다.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은 물론 한인생 주시경(1876~1914) 선생, 외솔 최현배(1894~1970) 선생, 그리고 앞서 언급한 권오순 시인 등 우리말과 글을 아름답게 갖고 다듬는 것이 나라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굳게 믿고 형국(衡國)의 길도 마다하지 않았던 술탄 분들. 이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간직하며 10월의 마지막 밤을 보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 아닐까.

〈주필〉

광저우가무극원 광주 공연 돌연 취소

악화된 한·중 관계 반영된 듯

중국 측 “공연단 신제적 문제”

중국 광저우가무극원이 오는 26일로 예정된 광주공연을 돌연 취소해 최근 악화하는 한·중관계를 반영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광주문화재단은 “오는 26일 광주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광주·광저우 자매도시 20주년 기념 중국 광저우가무극원의 ‘매력 광저우’ 공연이 중국 측의 사정으로 취소됐다”고 13일 밝혔다.

광주시의 문화재단이나 문화예술회관적인 광저우가무극원 유한공사측은 12일 광주문화재단에 보낸 공문에서 “공연단원의 신제적 문제 등으로 인해 공연 프로그램의 질을 보장할 수 없게 돼 방문공연행사를 취소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광주공연에는 50여명 출연진이 방문하기로 예정됐던 점을 감안하면, 일부 단원의 부상 등 ‘신제적 문제’로 아예 공연을 취소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종교단체 “한반도 사드배치 반대”

13일 광주시 동구 원불교 광주교당에서 광주종교인평화회의(회장 이옥수 신부) 소속 5개 종단 대표와 구성원들이 한반도 사드배치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

일각에서는 오히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결정과 우리 정부가 해경 고속단정의 침몰을 계기로 중국어선에 대한 강도높은 단속의

지를 천명한다며 따른 여파가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국측이 자비를 들여야하는 체류 비용 등이 부담됐을 것이라는 설도 있다.

광주문화재단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진행해 온 공연 사전예약 신청 및 서포터즈 모집을 중단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국토교통 R&D 예산 호남엔 ‘절름’

3년간 경기 4538억…광주 120억·전남 24억 그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연구개발(R&D) 예산이 광주·전남에는 ‘절름’ 지원되는데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 역량이 부진한 곳에 연구개발 예산을 더 많이 지원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과학기술 역량이 충분한 수도권에만 예산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당 주승용(여수) 의원이 국토교통 분야 R&D 육성을 책임지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R&D 예산 투자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총 1조1872억원의 투자실적이

수도권과 대전에만 집중됐다.

지난 3년간 경기도에 투자한 예산은 4538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8.2%, 서울시는 3103억원으로 26.1%, 대전시는 1250억원으로 10.5%를 각각 차지해 이들 3개 광역단체에만 74.8%가 집중됐다.

반면, 나머지 지역에 대한 투자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었다. 특히 전남 24억원(0.2%)과 광주 120억원(1.0%) 등 광주·전남권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이밖에 ▲경북 475억원(4.0%) ▲경남 369억원(3.1%) ▲부산 317억원(2.7%) 등 이었다.

/최원일기자 cki@

공직자간 경조사비 직무 상관없이 허용

기준이 모호해 공직사회에 혼란을 준 공직자간 경조사비 수수 문제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12일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주고받기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공직자간 경조사비 수수를 금지한 매뉴얼에 대해서는 수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권익위가 매뉴얼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경조사비를 수수할 수 없다’고

한 기준 입장을 번복한 것이어서 청탁방지법 시행 준비 부족에 대한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本 社 人 事

▲홍행기:편집국 사후부장

▲장필수:편집국 정치부 부장

〈10월 14일자〉

혈당조절

혈당이 왜 안떨어질까요?

ATP10골드

대한민국 특허 제0522532호

대한민국 당뇨특허 2건 등록!

ATP10골드는 세포에서 인체 에너지(7력)를 10배늘린다는 뜻으로 포도당 연소를 통해 발생하며 혈관 속의 넘쳐나는 포도당을 60조 개의 세포 속으로 이동시켜 에너지를 만들면서 당뇨인의 지친 세포에 활력을 주고 자연스럽게 정상 혈당으로 되는 것입니다.

NAVER
백세생활건강
검색

※자세한 내용은 책자, 자료 무료우송※

010-3598-7080

말하는 법 1%만 바뀌도 인생이 바뀝니다~!

www.kleader.kr

말 잘하게 하는 특별한 방법!

어머니스피치교실

내가 말을 잘하면 내 자식도 말을 잘한다

아버지 스피치 교실

초·중·고·대학생 등을 위한

학생부 스피치 교육

스피치 교육은 단순히 스피치만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피치를 잘하게 됨으로써 **교우관계에서 리더가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됨으로써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어 성적도 올라가게 되어 성격이 적극적으로 변하는 등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스피치 트레이닝을 빨리 할수록 효과가 활동해집니다.**

성공을 부르는 스피치~!

직장인 스피치

시(詩) 낭송 감성 스피치

★ 각 분야별 강사 파견 : 강사가 필요한 곳에 강사를 파견해드립니다.

☎ 062) 222-2255, HP. 010-9441-7000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

전통 문인시인 지혜한 안내문을 우송하여 드립니다.

20년 전 통

(주)호남경매

법원경매 이달의 추천 물건

- 동구 금남로 3층근린시설 우리은행빌딩 코너위치 대로변 건물 250평 토지 70평 ▶ 감정가 21억3천 최저가 18억7천만원
- 서구 광천동 5층건물575평 대지223평 신세계사거리코너 투자가치, 건물상태 좋음(2003년식) ▶ 감정가 41억6천만원
- 서구 벽진동 주택47평 대지176평 주변환경, 투자가치 1종일반주거지역 ▶ 감정가 2억4천만원 최저가 2억4천만원
- 서구 쌍촌동 2종일반주거지역 도로접 대지499평 투자적합 토지 222평 준주거지역 ▶ 감정가 11억9천 최저가 8억3천

상가.토지.병원.사옥.창고부지 매매상담

- 서구 치평동 상가10층중 10층 건물146평 토지26평 롯데마트사거리, 전망좋음 ▶ 감정가 8억8천 최저가 5억원
- 장성군 황룡면 2층주택 64평 대지 35평 주변환경 좋음 투자가치, 건물상태 좋음 ▶ 감정가 1억1천4백 최저가 8천만원
- 담양군 대덕면 토지 1044평 전원주택지 및 농지포함 투자가치, 주변환경 좋음 ▶ 감정가 4천6백 최저가 4천6백
- 북구 두암동 대주빌라 3층중 3층 건물40평 대지46평 주변환경 좋음 ▶ 감정가 2억5천만원 최저가 1억7천2백

광산구 하남3지구 8차선 대로접 상업지역 대지132평 전면넓음, 상권최상 프랜차이즈상당형 ▶ 거래가 18억(조정가)

금매

(주)호남경매 김용희 이사

010-7147-4989

농성동 무등산타워 10층 상가매매

신세계백화점 맞은편

뷔페식당·사무실·병원 등 최적입지

▶ 수의계약진행

감정가 : 32억원

매매가 : 22억원

▶ 전용면적 : 1,070㎡(10층 전체)

문 의

국제자산신탁

02-5202-3087

완도금일수협

062-364-2018